

경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특성 연구: 상사 류를 중심으로*

김장수** · 장동호***

A Study on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Rice-paddy Weeding Songs in Gyeongnam Province: Focusing on the Sangsa-ryu*

Jangsoo Kim** · Dong-Ho Jang***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방에서 채록된 논매기소리 중 ‘상사 류’의 유형 및 분포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남지방 중부 남강 유역에서 ‘상사 류’의 기본형인 ‘순 상사’형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지역이 ‘상사 류’의 문화중심지일 것으로 판단된다. ‘결말 상사’형 중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앞 결말 상사’형은 ‘어여루 상사’와 ‘어허닐닐 상사’로 나눌 수 있다. ‘어여루 상사’의 주 분포지역은 낙동강 본류와 황강이 만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지역이 ‘어여루 상사’의 문화중심지로 판단된다. ‘어허닐닐 상사’의 문화영역은 낙동강을 경계로 ‘어여루 상사’의 문화중심지와 근접하여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낙동강 동부의 창녕군 북부 지역이 문화중심지로 판단된다. 추후, 일부 DB화가 덜된 ‘상사 류’ 자료가 전국적인 DB로 구축된다면,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상사 류’의 확산과 분포 패턴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논매기소리, 상사 류, 문화분포, 경남지방, 민요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types and distribution patterns of ‘sangsa-ryu’ among songs collected and recorded in the Gyeongnam Province. The songs focused on this study were those performed while people carry out agricultural tasks such as rice-paddy weeding: weeding songs. The results showed that ‘net sangsa’, the basic form of ‘sangsa-ryu’, appears intensively at the Nam River watershed in the central part of the Gyeongnam Province. This points to the area being the cultural hub of ‘sangsa-ryu’. The ‘front patter sangsa’, which had a high frequency among the different ‘patter sangsa’ types, can be divided into ‘eoryeoryu sangsa’ and ‘eoeoneolneol sangsa’. The main distribution area of ‘eoyeoryu sangsa’ is the point at which the Nakdong River meets the Hwang River. Again, this suggests that the area is the cultural center of ‘eoyeoryu sangsa’. In addition, as the cultural area of ‘eoeoneolneol sangsa’ exhibits a high density, and is close to the cultural center of ‘eoyeoryu sangsa’ at the border of the Nakdong River, the northern part of Changnyeong-gun along the east side of the Nakdong River is also considered as central center.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f a structured set of ‘sangsa-ryu’ data is constructed for a national database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carry out research on the spread and distribution patterns of ‘sangsa-ryu’ across the country.

Key Words : Weeding song, Sangsa-ryu, Cultural distribution, Gyeongnam Province, Folk song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3158).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Institute of Regional Development Research, Kongju National University, matra99@kongju.ac.kr)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gisrs@kongju.ac.kr)

I. 서론

민요는 오랜 세월 동안 민중들에 의해 입으로 창작되고 전승해왔던 노래로, 구비문학 갈래 중에서 노래로 전승되어 온 무가(巫歌)나 판소리와는 달리 전문적인 수련을 받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이다(서영숙, 2019). 이러한 민요는 일상적 시·공간 속에서 자족적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지리적·사회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지역 특유의 것으로 전해져 왔다(최난경, 2009; 서영숙, 2019).

민요의 한 갈래인 논매기소리는 파종 후 논매기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수를 하기 전 세 번에 걸쳐 논매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가락의 노래를 불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논매기는 직파법이나 이앙법과는 관계없이 모두 해야 하는 일이므로 벼농사의 시작과 함께 행해졌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논매기소리 또한 모심기소리보다 오래전부터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하게 논매기소리에 대한 기록(논매기소리의 가사나 명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강등학(1997)은 논매기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세종실록의 실린 기사의 '농요'라는 단어에서 찾으며 여러 정황상 신라 말이나 고려 초에 논매기 소리의 기본적인 틀이 잡혔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제초작업(논매기)은 논농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논매기소리가 농요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강등학, 1997).

우리나라에서 논매기소리를 포함하는 농요 수집은 조선전기의 세종, 성종, 중종 때 조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 지방수령들을 통해 민요의 수집을 시도한 바도 있으나(강등학, 2009), 그 성과물은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농요는 191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식민통치의 정책을 수립하게 위해 수집하였던 자료가 존재하지만(강등학, 2009), 내용이 변조된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후 농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1970년대부터 국문학계가 구비문학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 하면서 우리나라 농요에 대한 채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강등학, 200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농업에서도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화학재료(제조제)의 사용으로 투입되는 노동력의 감소로 인해 논매기소리를 포함한 농요의 명맥이 지금은 거의 끊어진 상태이다. 국문학계와 민속학계에서는 명맥이 끊어져가는 우리 고유의 소리문화인 논매기소리를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양광호, 2001; 전지영, 2003; 최난경, 2009; 이소라, 2014; 최자운, 2016). 최난경(2009)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논매기소리를 대상으로 하루 중 언제, 무슨 일을 하면서 부르느냐에 따라 기능을 나누는 후 그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논매기소리는 기능별·지역별 분포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며, 특히 전라도 논매기소리의 경우 평야지대와 산간지대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자운(2016)은 경남지방의 논매기소리 중 상사(祥事) 류가 수용·전승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한창 벼가 커가고 일이 힘든 상황에서 외래소리가 수용되어 이 노래의 문자적 의미와 결합하여 상사 류 특유의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지리학계에서도 논매기소리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유재진·장동호(2014)는 충청남도 논매기소리의 분포는 주로 구조선 발달에 영향을 미친 지류 하천의 유로를 따라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했으며, 박현수·장동호(2016) 또한 충청북도의 논매기소리의 문화중심지가 충청북도 지역의 지질구조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위눈솔·장동호(2016)는 전라북도 논매기소리의 시·군별 분포 특성을 노령산맥을 경계로 하여 순창군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산간권과 고창군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평야권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이렇듯 주로 지리학계에는 논매기소리의 분포 및 전파 양상을 지형학적 특성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방에서 채록된 논매기소리 중 가장 빈도 수가 높은 '상사 류'의 시·군별 특성을 살펴보고 '상사 류'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중심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포함하는 본 연구의 대상지인 경남지방은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동해와 맞닿고 있으며, 서쪽은 소백산맥 및 섬진강을 경계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남쪽은 남해, 북쪽은 대구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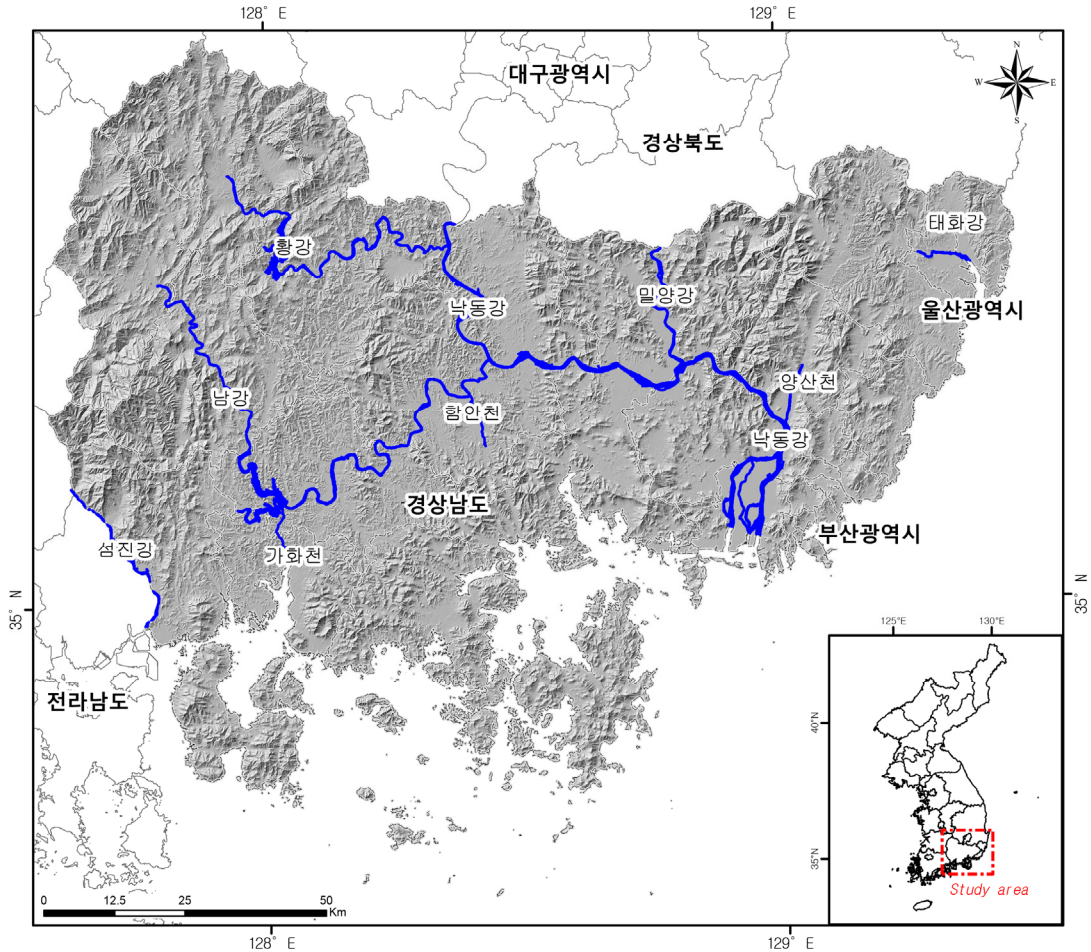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 위치도

역시 및 경상북도에 접하고 있다.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35'~129°28', 북위 34°39'~35°54'이며, 전체적으로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은 형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1).

경남지방은 태백산맥에서 뻗어 나온 동쪽의 낙동정맥과 서쪽의 소백산맥에 둘러싸여 있다. 산맥들의 주향이 일정하지는 않은 편이며, 대체로 서부지역은 소백산맥과 그 지맥들이 서부와 북동부로 뻗어 산지를 이루고, 동부지역은 낙동정맥의 크고 작은 산들에 의해 산지를 이루고 있다. 산지 지역에 둘러싸인 중앙부는 낙동강(洛東江)과 그 지류인 남강(南江)·황강(黃江)·밀양강(密陽江)·양산천(陽山川) 등이 위치하여 하천변을 중심으로 저지를 이루고 있다. 이들 하천 유역에는 침식분지와 충적평야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김해·남지·진

영·진양·밀양 지역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위치해 있다. 특히 김해평야는 낙동강 하구에 발달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충적평야 중 하나로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한편 경남지방의 해안지역은 소백산맥 및 태백산맥의 말단부에 발달한 구릉성 산지가 몰입하여 도서가 다수 위치하고,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리아스 해안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민족음악연구소에 의해 1970~80년대 경남 지역에서 집중 채록된 논매기 소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경남지방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상사 류'를 대상으로 그 분포와 특성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경남 지역에서 채록된 논매기 소리의 총 곡수는 723곡이며

표 1. 경남지방에서 채록된 논매기 소리 유형 및 수

유형	채록 수
상사 류	234
칭칭이 류	196
입말 류	52
어산영 류	42
모노래 류	41
궁굴레 류	21
기타(64개 유형)	137
합계	723

‘상사 류’, ‘칭칭이 류’, ‘입말 류’, ‘어산영 류’, ‘모노래 류’, ‘궁굴레 류’ 등이 10곡 이상 채록되었으며, 기타 원류를 찾지 못한 변형곡은 64개 유형 137곡이 채록되었다(표 1).

‘상사 류’는 후렴에 상사 또는 그와 유사한 음가(音價)가 들어있는 노래로, 모 찌기, 모심기, 논매기, 밭매기, 귀항하기, 나뭇집 지기, 말뚝 박기, 보 다지기, 흙가래질하기, 땅 다지기, 흙뭉치 울리기, 묘 다지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용도로 부른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상사 류’는 거의 모든 노동요로 사용되는 전남지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논에 모를 심으면서 부르는 중모리장단의 노래를 뜻하기도 한다(송방송, 2012).

‘칭칭이 류’는 교창식 모노래(모정자 소리), 어산영 등과 함께 경상도를 보고장으로 하는, 경상도의 대표적인 민요이다. 굿거리장단에 절로 춤이 덩실 덩실 나올 만큼 리듬감이 있어 여럿이 놀 때 파연곡(罷宴曲)으로 많이 쓰였다(이소라 등, 2017a).

‘입말 류’는 논매기 소리 중 ‘어 - 위 -’, ‘위 여 - 위 여 (이후후후)’와 ‘아 - 어 - 으 -, 이 여’, ‘위 위 어어 -’ 등과 같이 특별한 의미 없는 입말을 받음구 및 후렴구로 제창하는 형태의 노래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어산영 류’는 본래 경상도 지역의 나무꾼소리이지만, 울산이나 양산지방에서는 논매기소리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어산영 류는 춤추며 사설을 엮다가 이완하는 선율이 그 특징이다. 양산지방 어산영 류의 논매기소리를 보면, 받음구가 있는 ‘받 어산영’과 그렇지 않은 ‘순 어산영’으로 나뉜다. ‘순 어산영’ 곡도 가락이 일단락 나거나 끝낼 때는 이후소리를 흔히 넣으나, ‘받 어산영’ 곡에서는 그것 외에 긴 입타령이 일정한 받음구로서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후자는 입타령 류로도 분류된다(이소라 등, 2017b).

‘모노래 류’는 경상도 지방의 대표적인 모심는 소리가 다. 경남일대와 예천 민요권(예천군, 안동시, 영주시)을 제외한 경북일대 및 남부 충북(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에서 두루 불리운 노래이다. 한계지역은 경남 남해군이며, 남원(동쪽지역과 이백면, 산동면, 덕과면)·진안군·단양군·괴산군 일부(칠성면, 소수면, 문광면)와 청주시 일부지역(미원면, 낭성면, 가덕면, 문의면) 및 대전광역시 일부지역에까지 전파되어 있다(이소라, 1996).

‘궁굴레 류’의 ‘궁굴레’는 ‘흙을 굴린다’는 뜻으로 논매기 소리 중 받음구로 ‘궁굴레’, ‘궁, 굴레’, ‘궁굴레야/궁굴레헤 소리를 내는 유형이다. 충청남도 천안 지역과 경상남도 의령 지역에서는 논매기소리의 하나로 ‘궁굴레 소리’를 하며, 특히 천안에서는 호미로 초벌매기(아시매기), 두벌매기(이듬매기)를 하면서 ‘궁굴레 소리’를 부른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본 연구에서는 채록된 논매기 소리 중 ‘상사 류’를 대상으로 그 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사 류’의 가창 형태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고, 시·군별 가창 특성을 통해 경남지방 ‘상사 류’의 문화영역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70~80년대 채록된 경남지역의 논매기 소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DB화 하였다. DB화된 논매기 소리 중 ‘상사 류’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채록지의 행정리를 기준으로 지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리 단위의 점 자료를 구축 후 유형 별 문화중심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유추해 보았다.

III. 경남지방 상사 류의 시·군별 특성

1. 경남지방 시·군별 상사 류

거제시의 ‘상사 류’는 군말이 붙은 ‘결말 상사’형과 군말 없이 ‘상사디여’로 받는 ‘순 상사’형이 채록되었다. 그러나 군말이 붙은 ‘결말 상사’형의 경우 3명의 가창자 중 2명의 가창자가 통영시 및 고성군에서 거제시로 이주한 이력이 있어 거제시의 토착 민요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거제시의 ‘상사 류’는 고성군, 통영시 등 주변 시군으로부터의 바닷길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거제시에서 어느 종류의 ‘상사 류’가 불려졌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거창군 내 '상사 류'가 채록된 지역은 주상면 거기1리, 신원면 대현리, 남하면 양항리, 웅양면 군암리, 가북면 용산리와 가조면 석강리이다. 이들 '상사 류'는 거의가 '어 허루' '어널날' 등의 군말이 붙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거창군의 '상사 류'는 대부분 '앞 결말 상사형'이 불린다. 특히하게, 신원면 대현리의 경우 군말 없이 '상사디여'로 받아 '순 상사'형을 보여주고 있다. 거창군 내 '상사 류'의 분포지는 대체로 군의 동부 내지 북동부 방면이며, 특히 가조면 일대의 침식분지와 그 북서 방면의 보해산·금귀산 일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성군은 경남지방 중 '상사 류'가 가장 많이 채록된 지역이다. 특히, '상사 류' 중에서도 '순 상사'가 가장 많이 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 류'가 불리는 지역을 살펴보면 대체로 고성읍 우산리, 동해면 양촌리, 영현면 대법리, 영부리, 삼산면 병산리, 상리면 무선리, 회화면 당항리, 대가면 양화리 등 고성군 내에서 고루 형성되어 있는 저산성 산지들의 곡저부분에 발달한 평야에 많이 분포하며, 분포양상이 편재되지 않고 흩어져 있다.

김해시의 '상사 류'는 진영읍, 본산리, 송정리, 신월리, 금곡리, 봉림리 등 서쪽과 북서쪽의 평야지역에서 채록되었다. 김해시의 '상사 류'는 '상사'앞에 군말이 붙은 '앞 결말 상사'형으로 군말의 예는 '어허럴랄'류, '여 여루', '오 호호'로 '어허럴랄'류가 우세하다. '어허럴랄'류의 채록지역은 진영읍과 한림면 금곡리, 상동면 우계리, 진영읍 본산리, 대동면 조놀리이다. 남서쪽의 김해평야 일대에는 상사 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현대적인 제방이 축조되기 전에 이 일대가 지속적인 범람의 영향으로 논농사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남해군의 '상사 류'는 설천면 금음리, 고현면 남치리·대곡리, 남해읍 십천리, 이동면 석평리, 상주면 상주리, 미조면 송정리, 삼동면 영지리, 창선면 울도리·옥천리에서 채록되었으며, 이중에서도 설천면 금음리와 창선면 옥천리는 '변격 상사' 형에 해당된다. '상사 류'는 창선도(창선면)를 포함한 남해도의 동쪽 방면을 중심으로 불리고 있으며, 남해군에서 불리는 소리 중 가장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밀양시의 '상사 류'는 시의 서부지역인 무안면, 청도면, 하남읍과 서남부지역인 삼랑진읍에서 채록되었다. 모두 '상사' 앞에 '오홀럴랄', '어혈닐날', '에기닐날', '날 너얼랄' 류의 군말이 붙는 형태이다.

사천시의 '상사 류'는 곤명면 금성리·신흥리·서정

리·가화리, 사남면 월성리, 축동면 구호리, 사천읍, 서포면 구평리, 용현면 금문리, 곤양면 무고리, 정동면 대곡리에서 채록되었다. 사천시에서 가장 많이 채록된 논매기소리는 '상사 류' 중에서도 '순 상사'로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사천시의 가장 보편적인 논매기소리이다.

산청군의 '상사 류'는 단성면 사월리, 신등면, 생초면 구평리, 금서면 지막리, 생비량면 도리, 차황면 장박리, 시천면 사리, 금서면 특리, 삼장면 평촌리, 생초면 어서리, 신안면, 단성면 자양리에서 채록되었다. '상사 류'는 산청군의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지 않고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가장 많이 채록된 노래는 '상사 류' 중에서도 '순 상사'에 해당하며, 산청군에서는 '순 상사'가 '결말 상사' 형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양산시의 '상사 류'는 시의 중앙부, 서부, 동부지역 등 주로 양산천 유역에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채록지를 살펴보면 원동면에서는 '변격 상사'형이, 옛 웅상을 지역인 서창동 및 소주동과 동면 법기리 및 사송리에서는 '앞 결말 상사'형이 채록되었다.

의령군의 '상사 류'는 주로 군의 서부 6개면에서 불리우며, '순 상사'형이 많다. 낙서면과 가례면에서는 '결말 상사'형이 채록되었다. 동부지역이지만 유곡면 세간리와 낙서면 울산리에서도 '상사 류'가 채록되었다.

진주시에서 채록된 '상사 류'는 '순 상사'와 '결말 상사'가 채록되었다. 먼저 가장 많이 채록된 '순 상사'는 앞에 군말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경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불린다. 명석면 남성리·신기리, 진성면 동산리·천국리, 집현면 정수리, 수곡면 창촌리, 내동면 내평리, 사봉면 북마성리, 대평면, 이반성면 가산리에서 채록되었다. '순 상사' 다음으로 많이 채록된 '결말 상사'는 미천면 향양리, 이반성면 하곡리, 문산면 삼곡리, 금산면 갈전리, 일반성면 개암리에서 채록되었다.

'상사 류'는 창녕군 내에서 가장 많이 채록된 논매기소리로서 특정한 곳에 편재되지 않고 군의 전역에서 채록되었다. 경남지방의 상사류 논매기소리엔 '상사' 앞에 군말이 붙지 않는 '순 상사'와 '결말 상사'가 있지만 창녕지방에선 영산면 구계리와 계성면 광계리를 제외하곤 모두 '얼럴랄' '닐날'과 '어이여루' 계통의 '결말 상사'이다. '결말 상사'가 채록된 지역은 장마면 강리, 부곡면 노리, 이방면 초곡리·옥야리·모곡리, 대합면 퇴산리·소야리, 유어면 대대리, 대지면 효정리·모산리, 고암면 계상

리·월미리, 창녕읍 도야리 등이다.

창원시의 ‘상사 류’ 논매기소리에는 ‘순 상사’형과 ‘결말 상사’형이 분포한다. ‘순 상사’는 서남부 마산 합포구의 구산면 내포리와 진북면 인곡리·지산리, 진전면 오서리에 분포한다. ‘결말 상사’형의 지역은 의창구 동읍 용정리와 동읍 신방리, 의창구 대산면 가솔리, 마산 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마산 합포구 진전면 오서리·시락리이다.

통영시의 논매기소리로는 ‘순 상사’형과 ‘결말 상사’형이 채록되었다. ‘순 상사’형은 경남지방의 특색을 들어내는 논매기소리에 속한다. 이 지역에서는 ‘상사 류’를 논매기 뿐 만 아니라 모심을 때도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하동군의 옥중면, 고전면, 금남면, 양보면, 고전면에서 ‘순 상사’형이 채록되었고, 하동읍, 화개면, 북천면, 횡천면, 악양면에서는 ‘결말 상사’형이 채록되었다. 하동군 ‘결말 상사’형의 결말은 ‘어여루’, ‘얼러럴’ 계통이다.

함안군의 ‘상사 류’는 ‘순 상사’형과 ‘변격 상사’ 및 ‘결말 상사’ 등이 있다. 함안군에서는 ‘순 상사’형이 ‘결말 상사’형보다 더 많이 분포한다. ‘순 상사’형은 군북면 소포리, 법수면 윤외리, 대산면 하기리·대사리·구혜리·장암리, 칠북면 덕남리·화천리, 칠서면 청계리, 칠원읍 구성리, 여항면 외암리에서 채록되었다.

함양군에서 채록된 ‘상사 류’ 중 군말이 붙지 않은 ‘순 상사’형은 수동면 화산리와 병곡면 송평리에 분포하며 받음구 예는 각각 ‘상사디여’와 ‘사항 스허 디히 요’이다. ‘결말 상사’형은 서상면 상남리에서 수집되었는데, 받음구 예는 ‘여루 상사테야’이다.

합천군은 군말이 안 붙은 ‘순 상사’형인 대병면 장단1리를 제외하고, 받음구가 ‘에이여루’인 ‘결말 상사’형이다. ‘결말 상사’형이 채록된 지역은 가야면 사촌1리, 묘산면 산제리, 쌍책면 상신리·하신리·다라리, 초계면 택리이다.

부산광역시의 ‘상사 류’는 정관읍 예림리를 제외하고는 결말이 붙은 ‘결말 상사’형이다. ‘결말 상사’형은 기장면 대라리의 ‘어러럴’, 기장읍 죽성리의 ‘어러럴디기’, 장안읍 월내리의 ‘에헤야 얼러럴’과 정관읍 용수리의 ‘얼러럴’이다. 정관읍 예림리의 받음구는 “상 사오아,오호-,오호우-예(이후후)”로 ‘순 상사’형이지만, 상사디여의 ‘디여’가 나타나지 않고 긴 입말이 붙는다.

울산광역시의 ‘상사 류’는 특정한 곳에 편재되지 않고 시의 전역에서 채록되었다. 울산광역시에서 나타나는 ‘상사 류’는, ‘결말 상사’형과 ‘순 상사’형 이외에 상사디여의 ‘디여’ 대신 긴 입말이 붙는 형이 있다. 상사 앞에 결말이 붙어있는 ‘결말 상사’형이 채록된 지역은 강동동 산하마을, 청량면 동천리, 온산읍 강양리, 온산읍 화산리, 삼남면 교동리, 범서읍 천상리이다. ‘순 상사’가 채록된 지역은 온산읍 처용리, 두동면 이전리, 두동면 봉개리, 상북면 향산리가 있다.

2. 경남지방 상사 류 유형 및 시·군별 분포 유형

지금까지 경남지방에서 채록된 ‘상사 류’를 살펴보면 받는 말 중의 ‘상사’ 앞이나 뒤에 결말이 붙지 않은 ‘순 상사’형과 결말이 앞과 뒤 모두 혹은 앞이나 뒤 한 부분에 붙는 ‘결말 상사’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결말 상사’형을 좀 더 세분하면 ‘앞 결말 상사’, ‘뒷 결말 상사’, ‘앞뒤 결말 상사’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어느 곳에서 속하지 않은 ‘변격 상사’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 결말 상사’형에는 ‘어여루’ 계통과 ‘얼러럴’ 계통 및 그 밖의 유형들이 있다(표 2).

다음 표 3은 경남지방에서 채록된 ‘상사 류’ 유형 중 각 시·군별 ‘상사 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순 상사’형은 고성군,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

표 2. 상사 류 유형에 따른 가창 형태

유형	가창 형태
순 상사	상사, 상사디여, 상사 디야
뒷 결말 상사	상사 오호-, 상사 다히히이이
앞 결말 상사	어여루 상사, 어허널널 상사
앞뒤 결말 상사	허어 상사 디이여허어, 아아 아아, 상용사 - 아에 - 예
변격 상사	어허디야, 이히여, 상사-, 어허허위/

표 3. 경남지방 시·군별 상사 류 유형

시군	상사 류 유형
거제시	앞 결말 상사
거창군	앞 결말 상사
고성군	앞 결말 상사/순 상사
김해시	앞 결말 상사
남해군	앞 결말 상사/변격 상사
밀양시	앞 결말 상사
사천시	순 상사
산청군	순 상사/결말 상사
양산시	앞 결말 상사/변격 상사
의령군	순 상사
진주시	순 상사/앞 결말 상사
창녕군	앞 결말 상사/순 상사
창원시	앞 결말 상사/앞뒤 결말 상사/순 상사
통영시	순 상사
하동군	순 상사/앞 결말 상사
함안군	순 상사/뒷 결말 상사
함양군	순 상사
합천군	앞 결말 상사
부산광역시	앞 결말 상사/뒷 결말 상사
울산광역시	순 상사/앞 결말 상사/뒷 결말 상사/앞뒤 결말상사

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울산광역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 결말 상사’형은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양산시,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뒷 결말 상사’형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서 소규모로 채록되었으며, ‘앞뒤 결말 상사’형은 창원시와 울산광역시에서, ‘변격 상사’형은 양산시와 남해군에서 각 1곡씩 채록되었다.

3. 경남지방 상사 류의 문화영역

1) 순 상사형

‘순 상사’형은 경남 남서부지역과 중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울산시에도 일부 분포한다. 남강수계를 따라 펼쳐진 충적평야 지역에 넓은 범위로 분포하는 것이 특징적인 소리이다. 경남 동부지역의 김해시, 양산시, 부산시에서는 순 상사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울산광역시에서 채록된 ‘순 상사’형은 과거 남강유역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의 특별한 이주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순 상사’형의 문화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강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순 상사’를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의 상위차수 지류에 해당하는 남강은 함양군의 남덕유산에서 발원하여 창녕군과 의령군, 함안군의 경계부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경남 북서부 산지에서 발원하여 서부를 지나 경남 중앙부까지 곡류하는 남강은 하천변에 비옥한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함양군과 진주시, 함안군에서 나타나는 ‘순 상사’는 이러한 남강 충적평야의 공간적 연속성을 따라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

사천시와 고성군, 통영시에서 나타나는 ‘순 상사’는 남강유역의 평야지역과 지리적인 인접성으로 인해 주변지역에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앞 결말 상사형

‘앞 결말 상사’형은 ‘어여루 상사’와 ‘어허닐널 상사’ 두 가지 종류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어여루 상사’와 ‘어허닐널 상사’의 문화영역은 경남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한다. ‘어여루 상사’는 거창군, 합천군, 함안군, 고성군, 김해시, 통영시, 거제시, 창녕군에 분포하며, ‘어허닐널 상사’는 ‘어여루 상사’보다 더 넓은 범위에 고루 분포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창녕군에 많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어여루 상사’의 문화영역을 살펴보면, 합천군과 창녕군에서는 낙동강과 황강이 합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충적평야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거창군과 함안군, 고성군, 김해시, 울산광역시에서는 대부분 산지의 골짜기에 형성되어 있는 곡저평야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통영시와 거제시에서는 바다와 인접한 해안평야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어허닐널 상사’의 문화영역을 살펴보면, 낙동강과 양산천, 밀양강 주변부의 물길을 따라 형성된 충적평야가 발달한 지역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며, 고성군과 부산광역시, 거창군, 남해군, 진주시, 창원시는 주로 곡저평야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바다와 인접한 부산광역시는 해안평야에서도 소리가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 결말 상사’형의 두 소리는 경남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



그림 2. 경남지역 순 상사 류의 문화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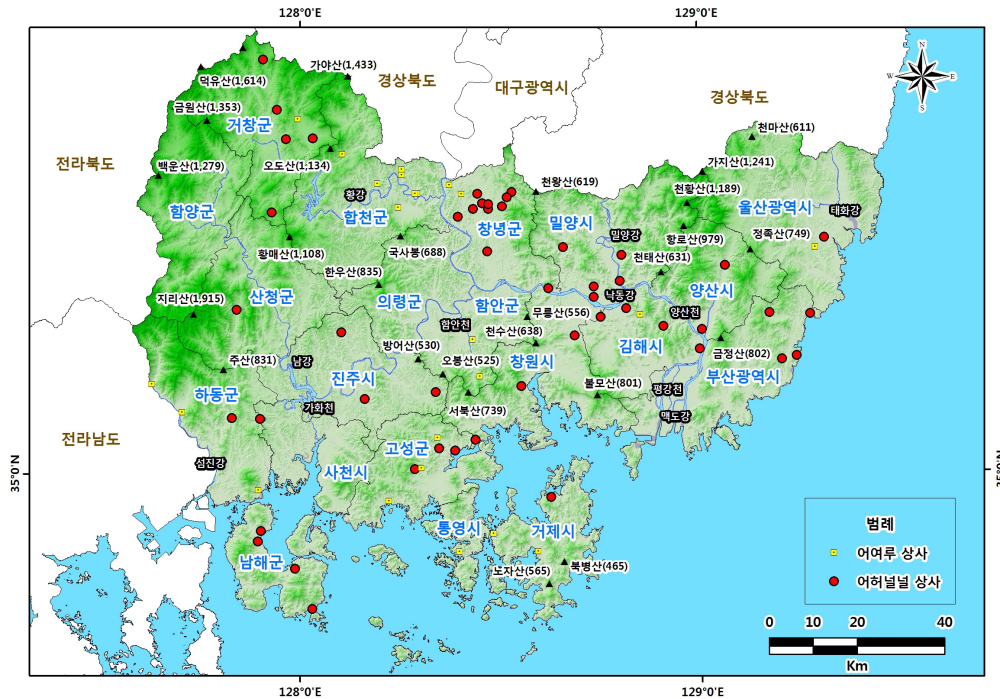


그림 3. 경남지역 앞 결말 상사의 문화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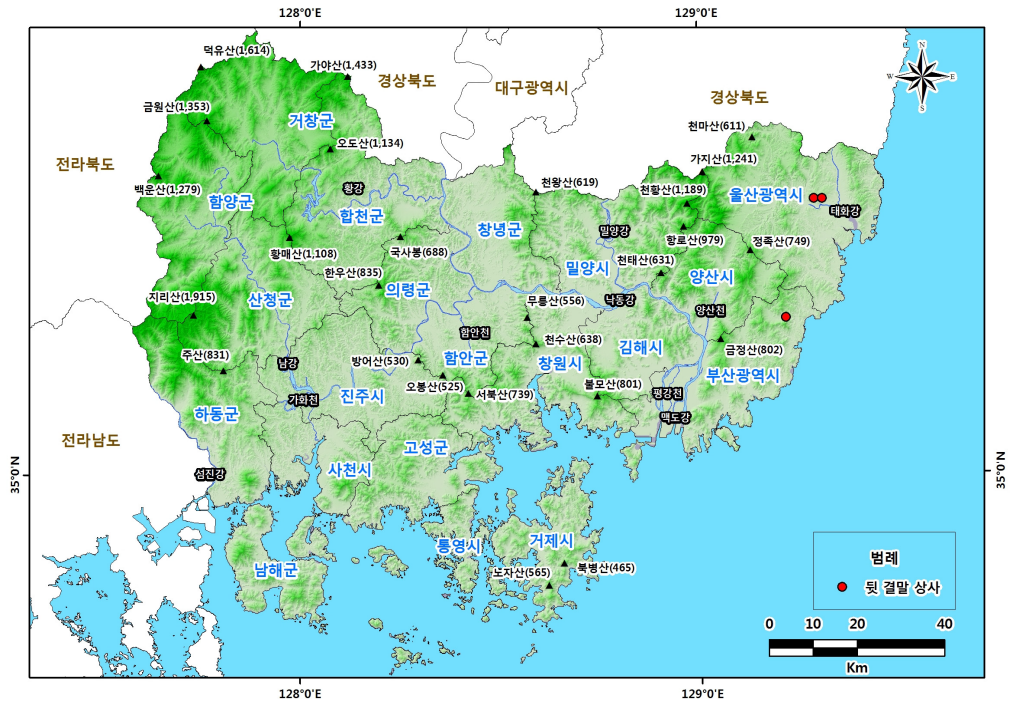


그림 4. 경남지역 뒷 결말 상사의 문화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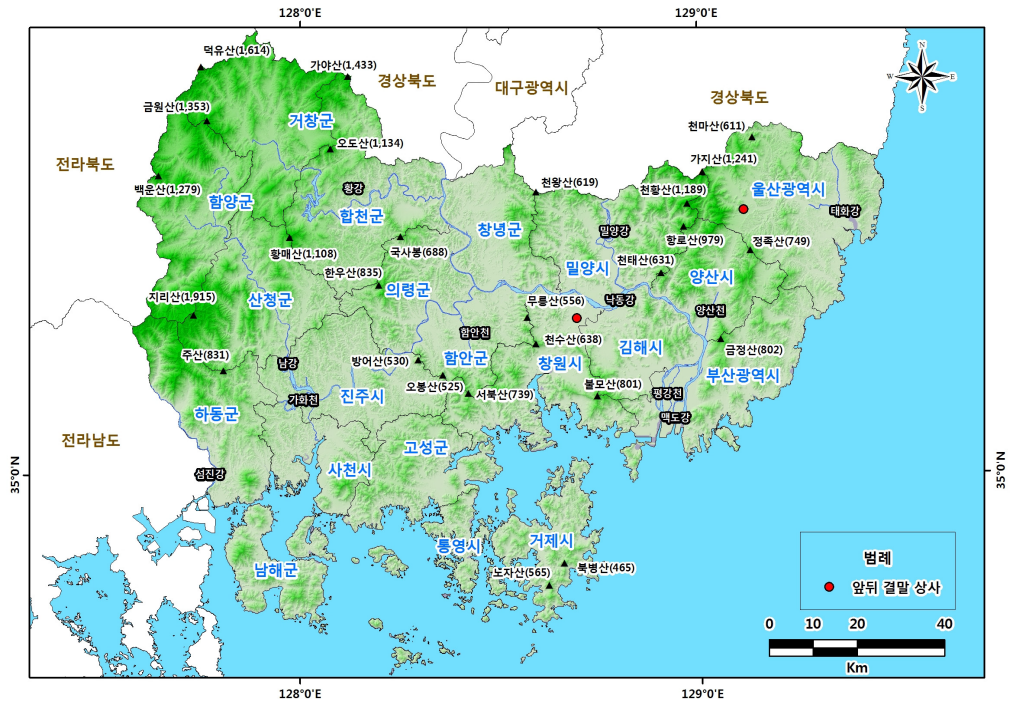


그림 5. 경남지역 앞뒤 결말 상사의 문화영역

로 판단된다. 황강·밀양강·낙동강·남강·섬진강·백도강 등 큰 강의 물길과 지류, 바닷길을 통한 상업적·문화적 교류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전역에 걸쳐 소리가 분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그림 3).

3) 뒷 결말 상사형/앞뒤 결말 상사형/변격 상사형

‘뒷 결말 상사형’과 ‘앞뒤 결말 상사형’, ‘변격 상사형’의 경우에는 전술한 ‘순 상사’에서 파생된 형태로서 채록된 수가 매우 적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특별한 분포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해당소리는 특수한 경우에 가창되었거나 일부 가창자들에 의해서 변격조로 등장한 노래이기 때문에 비록 분포패턴의 지리적 고찰은 불가능하지만 그 자체로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그림 4, 그림 5).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방에서 채록된 논매기소리 중 ‘상사 류’를 중심으로 시·군별 특성을 분석하고 ‘상사 류’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중심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970-80년대 경남지역에서 채록된 논매기 소리의 총 곡수는 723곡으로 이 중 ‘상사 류’가 234곡으로 약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남지방에서 채록된 ‘상사 류’는 받는 말 중의 ‘상사’앞에 결말이 붙지 않는 ‘순 상사’형과 결말이 앞뒤 또는 앞·뒤에만 붙는 ‘결말 상사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결말 상사형’을 좀 더 세분하면 ‘앞 결말 상사형’, ‘뒷 결말 상사형’, ‘앞뒤 결말 상사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어느 곳에서 속하지 않는 ‘변격 상사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 결말 상사형’에는 ‘어여루’ 계통과 ‘얼렁랄’ 계통 및 그 밖의 유형들이 있다.

‘순 상사’형은 경남 남서부지역과 중부지역인 남강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울산광역시에도 분포한다. ‘상사 류’의 문화중심지는 경남지방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남강유역은 ‘상사 류’ 중 가장 기본형에 속하는 ‘순 상사’형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이 ‘상사 류’의 문화중심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말 상사형’ 중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앞 결말 상사’형은 ‘어여루 상사’와 ‘어허널널 상사’로 나눌 수 있다.

‘어여루 상사’의 주 분포지역은 낙동강 분류와 황강이 만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지역이 ‘어여루 상사’의 문화중심지로 판단된다. ‘어허널널 상사’의 문화영역을 살펴보면, 낙동강과 양산천, 밀양강 주변부의 물길을 따라 형성된 충적평야가 발달한 지역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낙동강을 경계로 ‘어여루 상사’의 문화중심지와 근접하여 밀도 있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낙동강 동부의 창녕군 북부 지역이 문화중심지로 판단된다. ‘뒷 결말 상사’형과 ‘앞뒤 결말 상사’형, ‘변격 상사’형의 경우에는 채록 수가 적기 때문에 그 분포의 특징을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남지방에서 채록된 논매기소리 중 ‘상사 류’의 유형 및 분포 패턴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경남지방 중부 남강 유역에서 ‘상사 류’의 기본형인 ‘순 상사’형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지역이 ‘상사 류’의 문화중심지일 것으로 판단된다. 위눈술·장동호(2016)의 연구에 의하면 전북지역에서 ‘상사 류’가 나타나는 지역은 전북지역의 동부산악지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지역은 경남 및 경북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상사 류’의 문화중심지인 남강유역에서 하천과 고개를 따라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남지방과 연결한 전남지방의 ‘상사 류’의 분포 패턴을 분석하면 더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정리된 전남지방의 ‘상사 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경남지방에서 발생된 ‘상사 류’의 확산범위에 대한 연구는 차후 자료가 확보된 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동하, 1997, “한국 민요의 사적 전개 양상” 구비문화연구, 5, 97-122.
- 강동하, 2009, “한국의 민요연구 역사와 문제의식의 추이” 한국민요학, 27, 37-82.
- 박관수, 2012, “민요 용어의 설정 재고 -“향토민요”와 “통속민요”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24, 63-80.
- 박현수·장동호, 2016, “지형요소를 활용한 충북 논매기소리의 전파 특성 분석: 짧은방아 및 상사류를 사례로” 한국지형학회지, 23(2), 61-70.
- 서영숙, 2019, “한국민요 아카이브 및 라키비움의 구상” 한국민요학, 57, 41-72.

- 송방송, 2012, 「한겨레음악대사전, 파주: 보고서.
- 양광호, 2001, “경상북도 지역의 토속민요에 나타난 시김새 연구 -논매기 소리를 중심으로-,” 한국국악교육학회, 19, 60-146.
- 위눈술·장동호, 2016, “지형요소를 기반으로 한 전북지역 논매기소리의 공간분포 특성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6(2), 83-98.
- 유재진·장동호, 2014, “충청남도 남동부에서 나타나는 논매기소리의 분포와 전파에 관한연구 -지형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21(2), 11-23.
- 이소라, 1996, “모노래, 민아리 및 오독떼기의 비교연구,” 국악원논문집, 8, 157-192.
- 이소라, 2014, “올려가세 류의 논매기소리 고찰,” 한국민요학, 40, 145-168.
- 이소라·장동호·변정민, 2017a, 「경남지방 논매기소리 총서(상)», 공주·대전: 공주대학교·민족음악연구소
- 이소라·장동호·변정민, 2017b, 「경남지방 논매기소리 총서(하)», 공주·대전: 공주대학교·민족음악연구소
- 전지영, 2003, “전라남도 민요의 분포와 특징 -논매기소리와 모심기소리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2, 325-347.
- 최난경, 2009, “논매는 소리의 기능별 분류와 분포에 대한 고찰 -경상도 논매는 소리와 전라도 논매는 소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1, 298-336.
- 최자은, 2016, “영남지역 무형문화재 지정 논매기 상사소리의 수용에 관한 현장문적 연구,” 한국민요학, 46, 237-266.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amis.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https://mgeo.kigam.re.kr>
- 교신 : 장동호,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이메일: gisrs@kongju.ac.kr)
- Correspondence : Dong-Ho Jang, 32588, 56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gisrs@kongju.ac.kr)
- 투고접수일: 2020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6월 18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24일

